

2강 사랑과 용서(고후 1:12~2:11)

읽을 말씀 2:5~11

본문 배경에 대한 이해

바울 사도가 염두에 두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

- 바울 사도의 중간 편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바울 사도에게로 돌이키고 순종했던 사람들 (7:7~16)
- 여전히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주도적인 사람들
- 거짓 사도들과 두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

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두 가지 이야기

1.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를 설명(1:12~2:4)
 2. 고린도교회가 최근 자신의 중간 편지를 통해 회개하고 범죄한 사람을 그들의 교제권으로부터 축출하였는데, 그 사람이 이제 회개하였으므로 용서해 주라는 권면(2:5~11).
- 이 두 이야기는 서로 관련이 없어보이지만 사실 연결된 이야기다.

첫번째 이야기-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한 설명(1:12~2:4)

- “바울은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는 사람!”
 - 고린도교회가 여전히 바울 사도의 사도직을 문제삼을 때, 그들이 흠잡았던 중요한 것 하나가 ‘바울이 왜 자꾸 방문계획을 바꾸느냐’는 것이었다.
 - 처음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를 방문하여 좀 오래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말미에 썼었다(고전 16:1~7).
 - 하지만 ‘문제’를 해결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방문했다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곧 다시 오겠다고 말했었다(1:15,16).
 - 그런데 다시 오지는 않고(1:23) 그 ‘중간 편지’를 보냈다(2:4).
 - 거짓 사도들과 거기에 편승한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중적 사람이며, 기회주의자라고 평가하고 그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식으로 비난했다.
- 바울 사도는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한다(1:12~2:4). 이것이 첫번째 이야기!

“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을 대했습니다”(1:12).

(1:12)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

- 바울 사도의 첫번째 주장--
 - 거룩함과 진실함은 본래 죄인의 성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는 것인데, 바울 사도는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서(고후 5:17)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한다.
 -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인간적인 성품의 최선을 다해서 행동했다고 말하지 않는다.
 - 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처럼 양심에 걸리는 것 없이 행동하였다.

- 사도가 근거없는 비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근거--
 - ‘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’ 행하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난은 존재하지 않는다.
 -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성도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지배적인 동기와 가치가 되어야 한다.

“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행동했다는 것을 양심이 증거합니다”(1:12, 17~20).

(1:12)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

- 나는 너희 비난하는 자들이 말하듯이 ‘육체의 지혜’로 행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.
 -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게 되면 의지할 것은 세상 지혜 밖에 없다.
 - ‘육체의 지혜’ = 세속적 지혜, 세상의 지혜
 - ‘육체’ = 죄성(sinful nature)

- 바울에 대한 비난
 - 바울은 세상 지혜를 사용하여 한 입으로 동시에 ‘예’와 ‘아니오’를 하고 이랬다 저랬다하는 이중적인 기회주의자다.

• 바울의 대응

(1:17)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

(1:18)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

(1:19)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

(1:20)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

- 내 결정은 하나님의 신실하신(미쁘신) 성품에 맞는 결정들이었다(1:18).
-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다 성취하신 분이시듯이 (1:19~20)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성취하는 자로 행동해왔다.
- ‘아멘’(1:20) = ‘확증한다, 승인한다’(confirm)
- 바울 사도의 범사의 궁극적 목적--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주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아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.
- 이 모든 계획의 변경 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다.
- ‘하나님의 은혜로 행함’(1:12)에 대한 긴 설명

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도 자신의 확신에 대한 세 가지 설명(1:21~22)

(1:21a)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

- 첫째는 하나님은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시다--거듭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확신(1:21a)

(1:21b)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

- 둘째로,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시다(1:21b). 기름부음을 받으신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. 이것은 사도 자신과 고린도의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축복의 대상이 되었음을 확신시켜 주는 말입니다.

(1:22)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

- 세째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그 마음에 주시는 분이시다.
 - ‘인친다’ = ‘소유권을 주장한다.’ --고린도 교회의 거듭난 성도들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다.
 - ‘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’--비록 지금은 흔들림이 있더라도 마침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.
 - ‘보증’ = 계약금(down payment) 또는 약혼 반지
 - 계약금--모든 것을 완불하겠다는 약속.
 -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성취하실 일에 대한 약속으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.
 - “고린도 교회의 모든 거듭난 성도들이여, 너희는 내가 세상적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.”

사도 바울의 자랑

(1:12)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

- ‘자랑’이라는 말을 바울 사도가 사용한 용례--대부분 부정적 의미로 ‘자랑하지 말라’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했다(고전 1:29; 3:21; 4:7; 5:6)..
- 하지만 여기서 사도는 자신의 자랑을 말한다.
- 자랑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것은 자랑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자랑의 내용이다.

(10:17)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

- 사도는 자기 양심이 증거하는 바를 자랑한다.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의 삶 가운데 허락해주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고 그것으로 그가 살아왔다는 사실이다.
-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서 행하신 일—거룩함과 진실함—을 자랑하고 그것을 그의 양심이 증거한다.

양심과 신앙

(딤후 1:5)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거

(딤후 3:9)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

- 믿음과 양심, 양심과 믿음
 - 양심은 믿음을 담는 그릇
 - 양심은 믿음과 함께 간다.
 -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도 망가지게 되어 있다.
 - 바울 사도의 힘은 integrity 에서 나왔다.
- **“양심을 보호하라.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.”**

“마지막 심판날에 여러분은 저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”(1:13~14).

- 바울 사도의 담대함의 힘--진실함과 정직함

(1:13)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

- 바울 사도에 대한 비난: “바울이 쓴 글은 이해하기 어려워!”
- 바울 사도의 대답: “내가 지금 너희에게 쓰는 편지는 솔직하고 평이하게 쓰는 것이니 그것의 행간을 읽으려고 하지 말라.”

(1:14)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

- 조나단 에드워즈가 23년의 노샘프턴(Northampton)에서의 목회를 마치면서 전한 고별메시지의 본문.
 - 그는 그렇게 평생을 사랑하고 섬겼던 교인들의 투표로 목사로서의 사역을 거절당하고 사임하면서 이 본문으로 설교했다. “예수님 앞에서 목사와 교인은 특별한 의미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!”
- 바울 사도는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, 그날에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고 결국 주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.
- 또한 그는 그들의 사도요,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게 될 것이다.
-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을 바울 사도는 한 셈이다.
- 우리는 성도와 목사의 관계로 만나서 그 날에 이렇게 서로를 자랑할 수 있을까?
- 그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말라.

“여러분을 위해서,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(1:23~2:4)

(1:23b)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

- 고린도를 방문하겠다고 하고 방문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--‘너희를 아끼려 함이라’

(2:4)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

- 방문하지 않고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중간 편지를 써서 보낸 이유--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!

(13:1~2)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

(13:10)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

- 바울은 하나님이 임명한 사도로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다.
-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가 가게 되면 그들을 사도의 권위로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.
-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, 그들을 정말 아꼈기 때문에,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표현함으로써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주려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었다.

주님의 재림이 더딘 이유

(벧후 3:9)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

-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면 그것은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 기 위함이며,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 때문이다.
- 주님 재림의 날에는 모든 구원의 기회는 사라지게 되고 심판만이 주어질 것이다.
-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가 다시 가면 그들을 용서치 않고 정죄하고 내어쫓을 것이다.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에 그렇다.

(1:24)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

- 사도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고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,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굳게 서도록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다.
-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토록 비난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고, 그들의 기쁨을 위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그의 중요한 목표였다.
- 이것이 목사의 부르심이다.

두번째 이야기-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(2:5~11)

바울 사도와 고린도교인들이 알고 있는 ‘그 사람’

- ‘그 사람’ 때문에 바울 사도는 ‘중간 편지’를 썼다.
- 이전에 바울 사도가 고통스런 방문을 했을 때 많은 고린도 교인들은 ‘그 사람’에게 동정적이었고, 바울 사도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사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였다.
-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태도는 바울 사도와 교인들의 관계를 깨기에 충분했다.
- 그러나 바울의 근심어린 편지는 근심어린 방문으로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었다.
 - 이 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개를 했고 ‘그 사람’을 교회에서 축출하는 처리를 하였다(7:7~13).

- 그리고 ‘그 사람’ 자신도 교회의 판단을 받은 후 진심으로 회개하였다는 소식을 바울은 들었다.

“그 사람은 나에게만 아니고 교회 전체를 근심하게 한 사람입니다”(2:5).

(2:5)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

- 그 사람 = ‘근심하게 한 자’
 - 바울 자신을 근심하게 했다가 보다 교회 전체를 근심하게 한 사람
 - ‘어느 정도’ = 그 사람에게 너무 엄하게 하지 않으려는 바울의 마음
- 그 사람의 잘못/죄가 무엇인가?
 - 고린도전서 5장에 언급된 근친상간을 범한 자(초대 교부들의 일반적 해석--오늘날의 학자들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음)
 -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데, 바울 사도의 두번째 방문때 사도를 면전에서 모욕하고 비난하고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쳐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
 - ‘그 불의를 행한 자’와 ‘그 불의를 당한 자’(7:12)
 - ‘그 불의를 당한 자’ = 사도 자신이거나, 고린도전서가 전달될 즈음 고린도를 방문했던 디모데
- 교회의 연대성
 - ‘그 사람’은 바울 사도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일 것이다.
 - 그러나 사도는 나에게라기 보다 우리 모두에게 아픔을 주었다고 말한다.
 - ‘그 사람’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다면 이것은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일인 것이다.

“여러분은 내게 순종해서 그를 교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”(2:6).

(2:6)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

- 그 사람은 온 교회의 근심이 되었다.
- 감사하게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사도를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중간 편지를 통해 회개하였고 그 사람을 판단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.
- 이것은 사도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을 보여주는 표였다(2:9). 범죄한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들은 순종하였다.

“그 사람이 이제 회개하였으니 다시 순종하여 그를 용서하십시오”(2:7~10).

사도의 부탁

(2:7)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 하노라

(2:8)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

(2:9)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

- 바울 사도는 ‘그 사람’이 회개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.
- 고린도 성도들은 ‘그 사람’의 회개에 근거하여 ‘그 사람’을 용서하라고 권면한다.
- 교인들은 그 사람을 치리할 때 엄하게 했고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미워하게 되었을지 모른다.

- 그러나 그가 회개하였으므로 사도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부탁한다.

사도의 염려

- 교회가 회개하는 죄인에게 보여주어야 할 마땅한 사랑과 용서와 위로를 보여주지 못함으로 써 그 죄인이 돌아올 기회를 끝내 얻지 못하게 될까봐 사도는 염려한다.
- 그래서 바울 사도는 중간 편지에서 쓴 말에 순종하여 힘들지만 그를 벌하였듯이, 이제 이 편지(고린도후서)에 쓴 말에 순종하여 그를 용서하라고 권한다.
- 용서는 감정 이상의 것, 순종해야 할 문제다.

문제가 바뀌었다.

- 고린도교인들은 그들의 사도인 바울과 온 교회를 근심하게 만들었던 ‘그 사람’,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도를 배신하도록 영향을 주었던 그 사람을 치리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지만, 사도에게 순종하여 그를 치리했다.
- 그러나 이제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였다.

용서의 큰 의미

(2:10)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

- 고린도 교인들의 용서와 바울의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다.
- 너희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곧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.
- 내가 용서할 일이 있어서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(교회)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 것이다.

“용서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지 않게 되는 일입니다”(2:11).

(2:11)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

용서하는 행위와 사탄의 계책의 관계

- 사탄의 계책--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, 그 독이 은혜의 통로를 다 막아버릴 것이다.
- 교회 안에 사랑과 용서가 결여된다면 사탄은 그 자리에 비통함과 분열을 가져와, 교회를 더 이상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조직으로 변질시킨다.

교회의 지배 원리

바울 사도가 고린도 방문을 늦춘 이유와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사랑이다.

자신의 방문 계획 변경의 이유와 ‘그 사람’을 용서하라는 이야기의 상관관계

- 바울 사도는 고린도교회를 방문함으로써 그들을 엄하게 다루지 않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비난을 무릅쓰고 방문 일정을 연기했다.
- 고린도교회는 이런 심정으로 그 회개한 사람에게 자비를 보여야 한다.
- 바울 사도가 고린도 방문을 늦춘 이유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라고 하는 이유는 같다.

-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고, 이것이 교회의 지배 원리다

사랑은 죄인에게 내려지는 교회의 치리를 배제하지 않는다.

치리의 목적

- 치리는 본질적으로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유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.
- 동시에 교회가 치리(권계, 견책, 수찬정지, 출교)를 하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우선적 고려를 가진다.
-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때 교회는 최종적으로는 그를 교회로부터 출교할 수 있다.
- “세속화는 모든 주어진 문화 속에서 타락한 인간을 그들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생각이 그 주변부에 두는 가치와 신념 체계 그리고 행동이나 기대 같은 것들이다. 세속화는 어느 시대나 죄를 정상으로 보게 하고 의를 생소하게 보게 만드는 것이다.” 데이빗 웰즈 (David Wells)
- 교회는 하나님께서 난 자들, 거듭난 자들로 구성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.
- 가족 안에는 치리가 있지만, 클럽에는 치리가 설 자리가 없다.
- 교회는 치리를 통하여 교회, 곧 그리스도의 몸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한다.
- 하지만 치리만큼이나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사랑과 용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. 이것이 성경적 교회로 가는 길이다.

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.

- 우리는 다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목사와 성도의 ‘독특한’ 관계로 만나게 될 사람들이다.
- 그날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께 교인들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.
- 교인들은 목사에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.
- 그 날 서로를 자랑할 수 있는가?
- 그러므로 지금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하라.

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!

-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하라.
- 그리스도의 몸을 언제나 생각하라.
- 그리스도의 몸은 거룩하고 영광스럽다. 그리고 사랑과 용서라는 씨줄과 날줄로 엮어진 하나님의 가족이다.
-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라. 마지막 날에 우리는 결정적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.

오늘의 적용

-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? 양심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?
-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죄인을 치리하는 것이 사랑의 행위임을 이해하라.
- 권징을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다.